

‘슈퍼 화요일’에 웃은 힐러리·트럼프

중요 표발 13개주 경선서 압승...대의원 과반 확보

트럼프 대항할 공화당 크루즈·루비오 단일화 난항

미국 대선의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1일(현지시간) 슈퍼 화요일 경선 대결에서 사실상 압승했다.

민주당의 두 주자가 괴력을 발휘하며 지난달 1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신평탄으로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최대 승부처에서 각각 큰 승리를 거둬 따라 대선 후보로 성급 다가갔다.

이날 오후 9시 25분 현재 총 9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 대한 개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린 텍사스와 버지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테네시, 오클라호마, 아칸소, 매사추세츠, 사모아 등 8곳에서 사실상 승리했거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날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한 승리 연설에서 힐러리를 겨냥

한 듯 “공화당이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공화당 선두 주자가 분노와 분열의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이미 본선 행보에 돌입했다.

공화당에서는 예상대로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개표가 이뤄진 9개 주 중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 주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주를 제외한 5곳에서 승리를 확정짓거나 확실시된다.

크루즈 의원은 예상대로 텍사스 주에서 크게 이긴데 이어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승리를 확정지었다. 아칸소 주는 트럼프와 그의 대항마로 공화당 주류가 밀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초경합 중이다.

이제 공화당의 관심은 후보 단일화 여부로 쏠리고 있다.

공화당 수뇌부 등 주류는 ‘멕시코 접경 지역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 금지’ 등 발



힐러리

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를 최악으로 보고 후보 단일화를 도모해왔지만 크루즈, 루비오 의원이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는 이날 승리로 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확보 대의원 수인 매직 넘버의 거의 과반을 쟁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매직 넘버는 민주당 1015명, 공화당 595명이다.

흑인은 힐러리, 백인 진보층은 샌더스

美 민주당 경선 표심

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 13개 주에서 동시다발로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은 미국의 인종·세대·이념·지역별 특성이 뚜렷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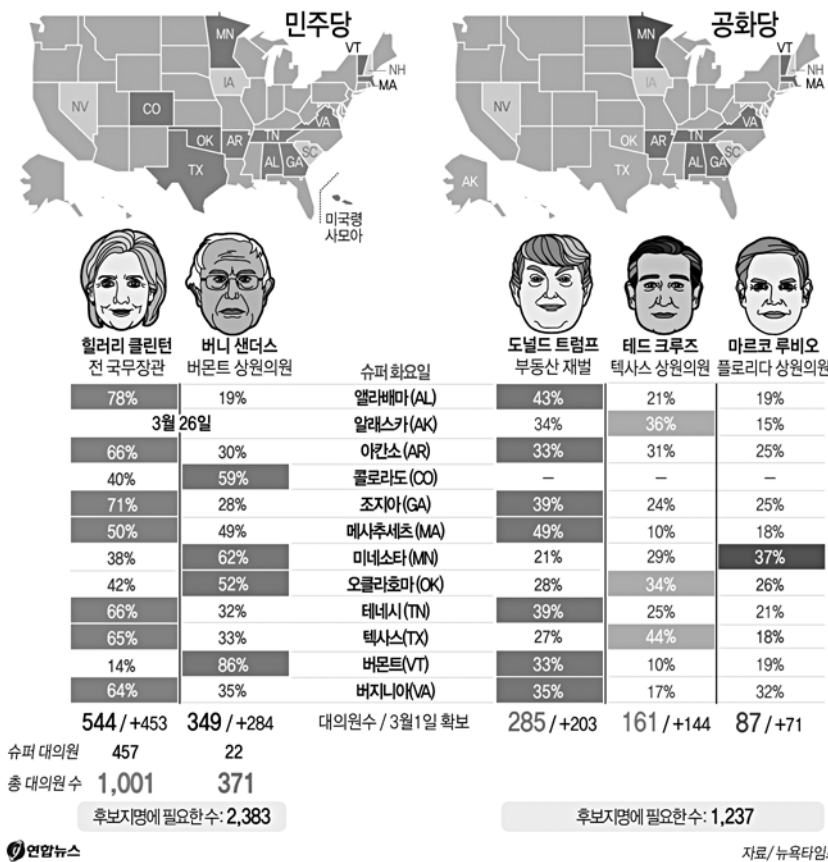
◇흑인, 예상대로 힐러리 압도적 지지 =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주당의 흑인 유권자들이 클린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것이다. 흑인 유권자 비중이 많은 앨라배마와 텍사스, 조지아, 버지니아에서 클린턴은 3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샌더스를 눌렀다. 앨라배마는 63% 포인트, 조지아는 43%포인트, 텍사스는 35%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흑인 유권자들이 클린턴에 몰표를 주면서 예고된 결과다. 특히 이들 남부 주는 흑인 유권자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비중도 큰 곳이다.

◇백인 진보층 표심은 샌더스 향해 = 백인 유권자 비중이 많은 민주당 경선 지역에서는 반대였다. 당장 샌더스의 지역구이면서 백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버몬트에서는 유권자들의 86%가 샌더스를 지지했고 클린턴은 13.5%를 얻는데 그쳤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샌더스가 불과 2.2%포인트 차로 클린턴을 따라잡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매사추세츠는 백인이 압도적인데다가,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로 평가되는

미 대선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연합뉴스

자료: 뉴욕타임스

곳이다. 샌더스에 승리를 안겨준 남부의 오클라호마 역시 백인이 대부분이고 흑인의 비중이 매우 작은 곳이다. 이번에 흑인 유권자들이 대거 클린턴에 몰린 데 따른 ‘반사 효과’로 백인들이 샌더스에 표를 던

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샌더스가 중남부의 콜로라도에서 승리를 두고 히스패닉계 표심에 호소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中 법관 보복 범죄 노출

공산당, 보호 규정 마련

중국에서 최근 법관을 노린 각종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당국이 판결 등에 불만을 품고 법관을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판사와 검사,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규정 초안에는 비방과 강압, 거짓 증언을 통해 판검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판검사가 테러나 조직범죄 등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 범인 경비원 등이 제공된다. 당국이 법관 보호에 나선 것은 법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베이징(北京) 장펑(昌平)구 후이룽관(回龍觀) 법정외의 마차이원(馬彩雲·38·여) 판사가 이혼 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 2명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해 2월 허난(河南)성 신상(新鄉)시에서도 이혼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가 법원 입구에서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저장(浙江)성의 우여수이 변호사는 판사가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해 한 쪽에 호의를 배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우자 없는 암환자, 사망률도 높다

호주 연구진 “후속 치료에 반영해야”

배우자가 없는 암환자들은 배우자가 있는 암환자들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퀸즐랜드공대와 퀸즐랜드암 협회(CCCQ) 연구진이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퀸즐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10대 암환자 17만605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배우자가 없는 남성 암환자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암환자보다 사망 가능성이 26% 높았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 암환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암환자에 비해 숨질 가능성이 20% 높았다. 이는 암 종류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퀸즐랜드암협회의 제프 던 교수는 “배우자 있는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경제적 및 심리적 요인과 함께 주위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신문에 설명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암별 사망 가능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폐암에 걸렸을 때는 사망률이 단지 2% 높아 큰 영향이 없었지만, 두경부암의 경우 30%나 높았다.

던 교수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신장과 폐암에 걸렸을 때는 사망률이 2% 높았다. 하지만 자궁암에 걸렸을 때는 41%나 높았다.

던 교수는 의료진이 배우자가 없는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후속 치료를 이 같은 사정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다시 심판대 오른 獨 민족민주당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제2부 판사들이 1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카를스루에에 위치한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극우 민족민주당(NPD)의 해산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시작하려고 법정에 도착해 있다. 지난 2003년 이 신(新)나치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일단 종결됐다가 10여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

네팔, 대지진으로 중단된 히말라야 등반 재개

네팔이 산사태와 지진으로 지난 2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에베레스트 등반을 올해 재개했다.

2일 현지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올해 히말라야 등반 재개를 전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지진으로 등반을 포기한 이들이 받은 등반허가가 2017년 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등산로 등에서 사다리과 밧줄 등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3개 팀 801명의 등반가가 1인당 최대 1만1000달러(1350만원)를 내고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등반 허가를 네팔 정부로부터 받았다.

생해 네팔 전역에서 8800여명이 사망하면서 대부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시 지진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만 등반가 19명이 사망했다.

에베레스트는 2014년 4월에도 산사태로 네팔인 셰르파 16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면서 네팔쪽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폐쇄되는 등 지난 2년간 등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네팔 관광업계는 정부의 등반 허가 연장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네팔 산악연맹 회장인 앙 체링 셰르파는 “이번 결정으로 산악인들이 다시 네팔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발표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